



경상북도 보도자료

2020. 7. 7(화)

TEL. 054-880-4322

제 목	담당부서	비 고
① 숲을 면역력 증진 공간으로.. 산림치유산업 활성화 업무협약 경상북도↔국립산림치유원↔경북도청공무원노동조합, 업무협약 체결 산림치유 신산업 개발, 치유프로그램 제공 등 산림치유 활성화 상호협력	산림산업 관광과	
② 기억의 전승과 보존, '세계기록유산 전시체험관' 개관 최첨단 시설 갖춘 국내최초 기록유산 전시체험관 개관으로 보존과 관람 가능	문화유산과	
③ 경북도, 농산물 산지유통정책 성과 빛났다. 경북도 원예산업종합계획 이행평가 A등급 획득, 개소당 30억원 지원 도내 18개 사군 및 품목광역조직 참여, 전국 최다 12개소 A등급 획득	농식품유통과	
④ 경북형 사회적경제, 코로나 실업위기 해소에 앞장선다 7.7일 대구대에서, '사회적경제 취업·창업학교' 개강식 개최 교육수료 후 창업희망자 최대 2천만원 지원, 취업희망자 일자리 매칭	사회적경제과	
⑤ 경북도서관, '북(Book)가(歌)락(樂)' 문화 아카데미를 집에서... 7.8일부터 '북가락' 정기 문화 프로그램 비대면 온라인 서비스 운영 온라인 강연공연으로 즐거운 집콕생활, 코로나 안정화되면 대면서비스 전환	경북도서관	
⑥ 경북은 버섯도 스마트하게 재배한다 경상북도농업기술원, 버섯 스마트팜 전문가 양성 실무교육 실시 최신 기술동향, 버섯 스마트팜 선진 농가 현장견학 등 실무중심 현장교육	농업기술원	
추가 경북도, 철인3종선수 인권침해사건 특별감사 착수 민원사항 처리과정의 적정성, 선수 인권보호 체계, 실업팀 운영 실태 조사	체육진흥과	

【 '산업용 헴프 규제자유구역특구 지정' 기자 간담회 보도자료】 - 기자 간담회 전 별도발송

제 목	담당부서	비 고
헴프산업화 규제자유특구 지정으로 대마산업 역사 새로 쓴다 경북 산업용헴프 규제자유특구, 국내 최초 대마산업화의 문 열어 - 스마트농업과 첨단바이오산업의 결합으로 지역산업의 새로운 모델 제시 실무기획력과 정무적역량이 합쳐진 결과물, 신도청시대 발전 촉매 기대	4차산업 기반과	

【 민선7기 전반기 성과 및 후반기 정책방향 실국별 기획 보도자료 】

제 목	담당부서	비 고
道 건설도시국, 변화와 새바람의 민선7기 2년 동안 SOC 확충 등 총력 다해.. 경북발전의 성장발판 다져 ▶SOC 국비 대폭 확보, 사통팔달 교통망 구축 등 괄목할 성과 거양 ① SOC 국비 대폭 확보 ② 사통팔달 교통망 구축 ③ 도시재생 뉴딜 사업 추진 ④ 안전하고 쾌적한 하천정비 ⑤ 명품행정문화도시 도청신 도시 활성화	건설도시국	

	보도자료 【20. 7. 7(화)】	담당부서	환경산림자원국 산림산업관광과				
		작성 자	과 장	김 말 술			
			팀 장	임일규	주무관	김인한	
		연 락 처	054-880-3627				

숲을 면역력 증진 공간으로... 산림치유산업 활성화 업무협약

- 경상북도↔국립산림치유원↔경북도청공무원노동조합, 업무협약 체결 -
- 산림치유 신산업 개발, 치유프로그램 제공 등 산림치유 활성화 상호협력 -

경상북도와 국립산림치유원, 경북도청공무원노동조합은 7월 7일 경북도청 회의실에서 ‘산림치유 산업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최근 코로나19 확산으로 단체여행보다는 개별여행 추세로 여행패턴이 변화하고 있으며 건강을 위해 치유목적으로 산림을 찾는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실제로 산림치유활동은 스트레스 저감, 긍정적 감정 증가, 부정적 감정 감소 등 치유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 ※ 산림치유활동에 대한 국립산림치유원 연구결과(2018년) 스트레스66.3%↓, 긍정적 감정6.7%↑, 부정적 감정21.6%↓

이에 경상북도에서는 국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국립산림치유원, 국립칠곡숲체원 등 국립치유시설을 유치하고 포항 내연산 치유의 숲 등 공립치유시설을 확충해 나가고 있다.

- ※ 국립시설(개원) : 국립산림치유원, 국립칠곡숲체원, 국립청도숲체원, 국립김천치유의숲
- 공립시설(조성중) : 포항 치유의숲, 경산 치유의숲, 군위 치유의숲, 울진 치유의숲

이번 업무협약은 산림치유 체험을 통한 면역력 증진 등 도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하고, 산림치유 및 힐링분야 신산업 발굴, 상호협력 등을 통해 산림치유 산업 활성화에 상생협력하기 위해 체결됐다.

협약의 주요내용은 △산림치유 산업 육성을 위한 산림과 관광자원을 연계한 치유프로그램 개발 및 홍보, △한국관광뉴딜·산림뉴딜 등 산림치유 신산업 개발을 통한 지속 가능한 일자리 창출, △백두대간 산림

치유분야 대국민홍보, 지역 임·특산품 판매 지원, 산림치유 정보교류를 위한 ‘백두대간 지역상생 산림치유 박람회’ 지원,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소속 공무원 면역력 증진 치유프로그램 제공, △기타 산림치유 활성화를 위해 상호협력하기로 했다.

이철우 경상북도지사는 “이번 협약을 통해 숲을 면역력 증진 공간으로 조성·관리하여 국민의 건강증진과 산림치유, 산림뉴딜 신산업 발굴에 상생협력해 산림치유산업 활성화에 전력을 다하겠다” 고 밝혔다.

<사진별첨>

참고

경상북도 ↔ 국립산림치유원 ↔ 경북도청공무원노동조합

산림치유 산업 활성화 업무협약

- ❖ 산림치유를 통한 도민의 건강증진과 산림치유·힐링분야 신산업 발굴 및 상호협력을 위한 산림치유 산업 활성화 업무협약 체결

■ 협약 개요

- 일 시 : 2020. 7. 7(화), 14:30 ~
- 협 약 : 경상북도지사·국립산림치유원장·경북도청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 장 소 : 도청 회의실 (호국실, 209호)
- 참석인원 : 13명 정도(도5, 국립산림치유원 5, 경북도청공무원노동조합 3)

■ 협약 내용

- 산림치유 활성화를 위한 치유프로그램 개발 및 산림치유 신산업 등 신규협력사업 발굴
- “백두대간 지역상생 산림치유 박람회” 지원
-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의료종사자, 경상북도 소속 공무원의 면역력 증진을 위한 산림치유 프로그램, 체험교육 등 제공

■ 시간 계획

시 간	주 요 내 용	비 고
14:30 ~ 14:40	10' 접견 및 환담	지사님 접견실
14:40 ~ 14:45	5' 개회 및 내빈소개	사회(자치행정과)
14:45 ~ 14:55	10' 인사말씀	도지사, 산림치유원장, 노조위원장
14:55 ~ 14:58	3' 협약서 서명·교환	
14:58 ~ 15:00	2' 기념촬영 및 폐회	

 경상북도	보도자료 【20. 7. 7(화)】	담당부서	문화관광체육국 문화유산과				
		작성 자	과 장	임진걸			
			팀 장	류문규	주무관	홍성애	
		연 락 처	054-880-3173				

기억의 전승과 보존, ‘세계기록유산 전시체험관’ 개관

- 최첨단 시설 갖춘 국내최초 기록유산 전시체험관 개관으로 보존과 관람 기능 -

경상북도는 7일 안동시 한국국학진흥원에서 김현모 문화재청 차장, 권영세 안동시장, 김상철 경북도 문화관광체육국장, 기탁문중 관계자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세계기록유산 전시체험관’ 개관식을 가졌다.

세계기록유산 전시체험관은 안동시 도산면 한국국학진흥원 내 2천260㎡(2층) 규모로 80억 원을 투자, 2017년 11월 착공해 2019년 12월에 완공했다.

지하1층 지상2층 규모의 세계기록유산 전시체험관은 지하1층에 현판 전문 수장고를 구비하고 지상 1층에는 세계기록유산인 유교책판을 관람할 수 있는 개방형 수장고를 마련했다. 지상 2층에는 현판 개방형 수장고와 세계기록유산 전시공간도 마련되어 누구나 편하게 세계기록유산을 관람하고 체험할 수 있게 됐다.

그동안 세계기록유산은 일반대중에 공개되지 못했는데 완벽한 시설을 갖춘 개방형 수장시설을 갖추게 되면서 이제는 누구나 편하게 세계기록유산 실물을 대면할 수 있게 되었다. 경상북도는 세계기록유산 전시체험관 개관을 통해 세계기록유산의 보존과 관람이라는 두 가지 측면을 모두 만족시킬 수 있게 됐다.

경북도는 2015년 ‘한국의 유교책판’ 이 세계기록유산에 등재된 이후, ‘한국의 편액’, ‘만인소’ 등을 잇따라 아태 기록유산에 등재시키는

등 명실공히 세계기록유산의 보고라 할 수 있다.

김상철 경상북도 문화관광체육국장은 이날 축사를 통해 “세계기록유산 전시체험관 개관을 통해 보다 많은 사람들이 세계기록유산을 체험하고 느낄 수 있게 되길 바란다” 며, “경상북도에서는 앞으로도 세계기록유산 아카이브* 구축, 삼국유사를 비롯한 다양한 기록유산 발굴 및 신규등재 추진을 통해 세계기록유산의 가치와 의미를 국내외에 알리는데 앞장서겠다” 고 말했다.

* 아카이브 : 소장품이나 자료 등을 디지털화해 모아서 관리할 뿐만 아니라 그것들을 손쉽게 검색할 수 있도록 모아 둔 파일.

<사진별첨>

참고

세계기록유산 전시체험관 개관행사 계획

세계기록유산 전시체험관

- 사업기간 : 2017년 ~ 2019년(3년간)
- 사업위치 : 안동시 도산면 퇴계로 1997(한국국학진흥원 내)
- 사업량 : 부지면적 2,260㎡(건축연면적 : 1,970㎡), 지하1층·지상2층 규모
- 수장기능 642.5㎡, 전시실 198.5㎡, 체험실 134.5㎡ 등
- 총사업비 : 80억원(국 24,도 28,시 28)

행사개요

- 일 시 : 2020. 7. 7(화) 10:30~13:10
- 장 소 : 한국국학진흥원 (본관 1층 대강당)
- 참석대상 : 100여 명
 - 김현모 문화재청 차장, 안동시장 및 유관부서 관계자
 - 주요기탁문중 관계자 및 유림
- 주요내용
 - 세계기록유산 전시체험관 제막식
 - 유교책판과 편액 전시공간 관람

시간계획

시간	진행순서	비고
10:00	참석자 등록	
10:30 ~ 10:45	15" 식전공연	
10:45 ~ 11:05	20" 개회선언 및 축사	* 개회사 : 국학진흥원장 * 축사 : 국장님 등 주요내빈
11:05 ~ 11:20	15" 전시체험관 건립 경과보고	* 보고 : 국학기반본부장
11:20 ~ 11:40	20" 제막식 및 기념촬영	* 주요내빈
11:40 ~ 12:10	30" 전시관 관람	* 안내 : 국학기반본부장
12:10 ~ 13:00	50" 오찬	* 도시락

『유교책판』 기본현황

○ 기본현황

- 관 리 자 : 한국국학진흥원 위탁보관
- 등재건수 : 718종 64,226점
- 소 유 자 : 각 개인·문중(305개 문중에서 기탁)
- 내 용 : 조선시대 유학자들의 저작물을 책으로 출간한 후 민간에서 보존·관리해 온 책판
- 종 류 : 문집 583종, 성리서 52종, 족보·연보 32종, 예학서 19종, 역사서 18종, 훈몽서 7종, 지리지 3종, 기타 4종

○ 주요특징

- 책판의 변천을 살필 수 있는 다양한 종류와 시대별 책판으로 구성
- 저자와 제작 주체가 다르며, 이를 한 곳에 모아 등재 신청한 컬렉션
- 세계기록유산 등재되는 3번째 목판(팔만대장경, 베트남 응웬왕조 목판)
- 국가나 종교의 힘으로 제작된 것이 아닌 민간에서 자발적으로 제작

○ 세계기록유산?

- 고문서 등 전 세계의 귀중한 기록물을 보존하고 활용하기 위하여 1997년부터 2년마다 세계적 가치가 있는 기록유산을 선정
- ※ 우리나라는 현재 16건의 기록유산 보유

우리나라 세계기록유산 등재현황

- 훈민정음·조선왕조실록(1997), 직지심체요절·승정원일기(2001)
- 조선왕조의궤, 해인사 고려대장경판 및 제경판(2007),
- 동의보감(2009), 일성록, 5.18민주화운동 기록물(2011)
- 난중일기, 새마을운동기록물(2013)
- 유교책판, KBS특별생방송 이산가족을 찾습니다(2015)
- 조선왕실 어보와 어책, 국채보상운동기록물, 조선통신사기록물(2017)

『편액』 기본현황

○ 기본현황

- 관 리 자 : 한국국학진흥원 위탁보관
- 등재건수 : 550점
- 소 유 자 : 각 개인 · 문중(189개 문중·서원에서 기탁)
- 내 용 :
- 대상유산 : 한국의 편액 550점(주거 137, 추모 64, 교육 231, 수양 118)
- 등재의의
 - 2~3글자로 유학적 세계관을 담아 전승하려는 노력의 결과물
 - 글씨가 지닌 예술적 가치가 높이 평가 됨.

※ 편 액 (扁 額)

- 건물의 처마와 문 사이에 글씨를 새겨 걸어둔 표지판으로 건물의 기능과 의미, 건물주의 가치관을 3~5자 함축하여 반영
- 유학적 세계관을 바탕으로 한 동양의 인문정신과 글씨의 예술적 가치가 동시에 포함된 상징물

○ 추진현황

- '15. 10. 31 : 유네스코 아시아·태평양기록유산 등재 신청(편액 550점)
- '16. 05. 19 : 제7차 아태기록유산위원회(MOWCAP) 총회 (베트남 후에市) 에서 등재 결정

※ <한국의 편액> 세계기록유산 국제목록 등재 추진 중

 경상북도	보도자료 【20. 7. 7(화)】	담당부서	농축산유통국 농식품유통과				
		작성 자	과 장	설 동 수			
			사무관	김철수	주무관	김수환	
		연 락 처	054-880-3346				

경북도, 농산물 산지유통정책 성과 빛났다.

- 경북도 원예산업종합계획 이행평가 A등급 획득, 개소당 30억원 지원 -
- 도내 18개 시·군 및 품목광역조직 참여, 전국 최다 12개소 A등급 획득 -

경상북도는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주관하는 2020년 원예산업종합계획 이행실적 연차평가에서 최고 등급인 A등급을 전국 최다 획득했다.

경북도에서는 이번 평가에 총 18개(도·시·군 16, 품목광역 2)의 원예산업 종합계획이 참여해 도를 포함해 12개 계획이 A등급을 획득했다. 이는 전체 54개 A등급의 22.2%를 차지하는 비율이다.

- * A 등급 : 경북도, 포항시, 경주시, 김천시, 안동시, 영주시, 상주시, 경산시, 성주군, 청도군, 예천군, 송원APC

이번 평가는 전국 117개의 광역·기초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수립한 원예산업종합계획을 대상으로 노력도, 생산분야, 유통분야 등 3개 항목 7개 분야에 대해 목표대비 이행실적 등을 파악하기 위해 실시됐다.

A등급을 받은 시·군 및 품목광역조직은 산지유통활성화 무이자 자금 30억 원과 원예산업 관련사업 신청 시 우선선정 등의 인센티브가 주어진다.

- * 원예산업종합계획은 각 지자체의 원예농산물의 체계적인 육성을 위해 생산·유통 분야를 망라한 5개년 계획으로 정부와 지자체 산지유통정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수립하는 계획이다.

그간 경북도에서는 원예산업종합계획의 체계적인 이행을 위해 2014년부터 매년 100억 원 규모의 사업비를 투입해 산지유통조직의 규모화·전문화를 촉진시켜 도내 원예농산물의 생산과 유통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다.

이에 따라 도 및 시·군단위 통합마케팅조직 16개소를 육성하여 사업 첫 해인 '14년도에 1천324억 원의 과수통합마케팅 매출을 시작으로 매년 두 자릿수 성장을 거듭해 지난해는 ' 14년보다 약 4.1배 늘어난 5천402억 원의 매출액을 올린 것이 이번 평가에 주요한 요인으로 작용 되었다.

김종수 경상북도 농축산유통국장은 “이번 성과는 통합마케팅을 중심으로 하는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한 결과” 라 말하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지원과 노력을 통해 농산물 유통구조개 선을 완수하여 농업인 소득과 편의 증진에 모든 노력을 아끼지 않을 계획” 이라 말했다.

<사진없음>

 경상북도	보도자료 【20. 7. 7(화)】	담당부서	일자리경제실 사회적경제과				
		작성 자	과 장	김 백 환			
			팀 장	차순애	주무관	김유민	
		연 락 처	054-880-2614				

경북형 사회적경제, 코로나 실업위기 해소에 앞장선다

- 7.7일 대구대에서, ‘사회적경제 취업·창업학교’ 개강식 개최 -
- 교육수료 후 창업희망자 최대 2천만원 지원, 취업희망자 일자리 매칭 -

경상북도는 7일 대구대학교 본관 성산홀에서 교육수강생, 사회적경제 관계자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0 경북형 사회적경제 취업·창업 학교’ 개강식을 개최했다.

이날 개강식은 교육과정 안내 등과 함께 ‘사회적경제의 기초와 취업·창업 학교의 운영사례’ 라는 주제로 특강 후, 교육 참여자들 간의 소통과 교류를 위한 ‘네트워킹 프로그램’ 행사로 이어졌다.

경북형 사회적경제 취업·창업학교는 체계적인 취·창업 프로그램을 통해 경쟁력 있는 사회적경제기업 모델 발굴·육성해 지속성장 가능한 경상북도 사회적경제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운영된다.

이날 입교한 교육생은 7월부터 10월까지 사회적경제에 대한 기본 및 심화교육을 받고, 교육 수료 후 사업계획서 평가를 통해 창업희망자는 최대 2천만 원의 창업사업비가 지원되며, 취업희망자는 경상북도 사회적경제기업의 일자리 매칭 기회도 주어진다.

올해 사회적경제 취업·창업학교 기본과정은 경산, 안동, 포항의 3개 권역으로 나누어 실시되며, 분야별 전문가를 초빙해 사회적경제 전반에 대한 기초와 실무, 간담회 및 사업내용 체험을 통한 실질적인 사회적경제기업 운영 노하우를 학습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심화교육 과정은 기본과정 수료생을 대상으로 진행되며, 창업패키지를

통해 법인설립부터 사회적경제기업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실무역량 강화 교육과 우수한 선배 사회적경제 기업가로부터 컨설팅 및 멘토링 지원 등을 받을 수 있다.

경북형 사회적경제 취업·창업학교는 최근 2년(17년~18년)동안 13개 팀이 예비사회적기업에 지정되고, 협동조합 3개소를 설립하는 성과를 거두었으며, 8개 팀 또한 지속적으로 사후관리 중이다. 또한, 지난해에는 13개 창업팀을 우수모델로 선정하여 기업당 5백~20백만 원의 사업비를 지원했다.

* 창업지원 37팀(17년 14, 18년 10, 19년 13개팀)

김백환 경상북도 사회적경제과장은 이날 개강식에서 “연초부터 코로나 확산으로 움츠러든 지역경제를 되살리기 위해 경북도는 실질적으로 창업과 취업이 가능한 다양한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원 체계를 마련할 것” 이라고 의지를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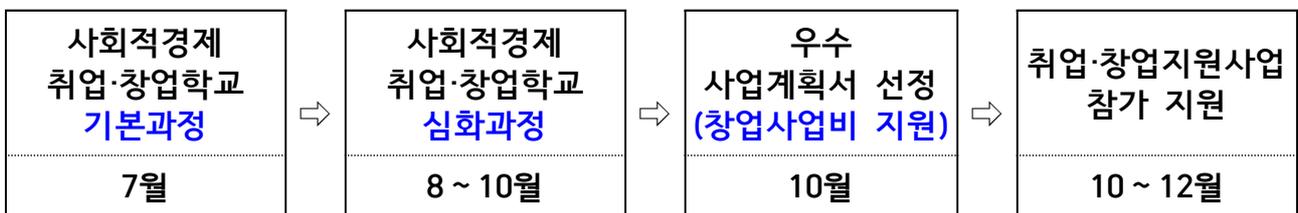
<사진별첨>

참고

경북형 사회적경제 취업창업학교 개강식 개최

행사개요

- 일 시 : 2020. 7. 7.(화) 19:00
- 장 소 : 대구대학교 본관 성산홀(경산시 진량읍 대구대로 201)
- 참 석 자 : 취업·창업학교 교육생 100명 정도
※ 취업창업학교 교육생 모집현황 : 172명(창업 156, 취업 16)
- 주관기관 : 경상북도 사회적경제지원센터
- 주요내용 : 취업창업학교 개강식, 경북 현황 소개, 네트워킹 등



시간계획

시 간		주 요 내 용	비 고
19:00~19:10	10'	▶ 일정 안내 및 오리엔테이션	이주현 팀장 (사회적경제지원센터)
19:10~19:15	5'	▶ 인사말씀	사회적경제과장
19:15~20:30	75'	▶ 특강 • 사회적경제의 이해 • 경상북도 현황	이승희 실장
20:30~22:00	90'	▶ 네트워킹 프로그램	박동철 (MC리더스 대표)
22:00~		▶ 폐회	

	보도자료 【20. 7. 7(화)】	담당부서	경북도서관			
		작성 자	관 장	김진창		
			팀 장	신광현	주무관	이지원
연 락 처	054-650-3922					

경북도서관, ‘북(Book)·가(歌)·락(樂)’ 문화 아카데미를 집에서

- 7.8일부터 ‘북가락’ 정기 문화 프로그램 비대면 온라인 서비스 운영 -
- 온라인 강연·공연으로 즐거운 집콕생활, 코로나 안정화되면 대면서비스 전환 -

경북도서관(관장 김진창)은 코로나 사태 장기화로 움츠러든 독서·문화 서비스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7월 8일부터 ‘북(Book)·가(歌)·락(樂) 문화 아카데미’를 비대면 온라인 서비스로 시작한다.

‘북가락’은 책(Book), 음악(歌), 공연(樂)을 도서관에서 함께 즐기자는 의미로, 도민의 생활에 활력을 불어넣고, 인문학적 소양 함양에 기여하고자 기획된 경북도서관 정기 문화 프로그램이다.

아카데미는 당초 경북도서관 강당에서 열릴 예정이었으나, 코로나19 확산 및 문체부의 코로나19 대응 단계별 지침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온라인 비대면 서비스로 전환하게 되었다.

이번, 북가락 문화 아카데미는 7월부터 12월까지(매달 둘째, 넷째 수요일) 총 12회(강연 8회, 공연 4회)에 걸쳐 진행되며, 8일 고미숙 작가의 강연 ‘코로나 이후 삶의 방향과 비전’을 시작으로, 22일 이호선 교수의 ‘가족을 움직이는 소통 심리학’, 8월 12일 문경수 탐험가의 ‘잃어버린 호기심을 찾아서’ 등 수준 높은 명사강연을 매달 진행할 계획이다.

강연과 공연은 해당 날짜에 경북도서관 홈페이지에 접속하면 누구나 시청이 가능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경북도서관 홈페이지 (<https://lib.gb.go.kr/>)를 참조하면 된다.

한편, 경북도서관은 코로나19 위기경보가 ‘심각’ 단계를 유지하는 동안에는 독서문화 서비스를 비대면으로 운영할 계획이며, 위기단계가 ‘경계’ 수준으로 안정화되면 다시 대면 서비스로 전환할 방침이다.

김진창 경북도서관장은 “지난 3월 비대면 프로그램인 ‘집에서도 즐기는 경북도서관’이 도민들에게 큰 호응을 얻은 바 있다”며, “비대면 시대 흐름에 발맞춰 경북도서관도 새로운 문화향유 방법 마련을 위해 더욱 힘쓰겠다”라고 밝혔다.

<사진별첨>

 경상북도	보도자료 【20. 7. 7(화)】	담당부서	농업기술원 기술보급과				
		작성자	과장	김수연			
			팀장	김신동	주무관	한상렬	
연락처	053-320-0281						

경북은 버섯도 스마트하게 재배한다

- 경상북도농업기술원, 버섯 스마트팜 전문가 양성 실무교육 실시 -
- 최신 기술동향, 버섯 스마트팜 선진 농가 현장견학 등 실무중심 현장교육 -

경상북도농업기술원은 경북버섯품목조직 회원을 대상으로 7월 6일에서 7일까지 이틀간 ‘버섯 스마트팜 확산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버섯 스마트팜 최신 기술에 대한 농가 이해를 돕고 ICT 정보통신 기술을 접목한 스마트 농업기술을 현장에 확산하고자 마련됐으며, 최신 버섯 스마트팜 기술동향에 관한 일반 이론교육과 버섯 스마트팜 선진농가 현장견학으로 진행됐다.

1일차 교육은 버섯재배 일반 이론에 대해 국립원예특작과학원 이찬중 박사의 ‘버섯 스마트팜 적용 기술에 대한 교육’과 경북농업기술원 고대환 지도관의 ‘느타리버섯 스마트팜 재배의 실제’를 주제로 균일한 성장 및 품질 관리를 위한 스마트팜 전용 버섯 재배사 개발의 필요성과 재배 환경관리 등 데이터 기반에 대해 교육했다.

현장교육으로 진행된 2일차 교육은 강원도 홍천의 (주)청량버섯농원과 문경시산림조합버섯배지센터를 방문했다.

(주)청량버섯농원 김민수 대표는 농촌진흥청에서 선정하는 신지식인 농업인명장을 수상했을 정도로 선진적인 기술을 보유하고 있으며, 실제 농원경영 성공과 실패요인 등에 대한 실전사례를 현장 문답식으로 진행했다.

이어서 문경시산림조합버섯배지센터의 혼합실, 입봉실, 급냉실, 접종실,

배양실, 출하실 등 주요 시설과 스마트팜 재배하우스 4동을 견학했다.

경상북도는 스마트팜 희망·도입 농가를 대상으로 교육·컨설팅, 사후관리, 홍보 등을 통한 스마트팜 확산가속화 및 현장 활용도 제고를 위해 2015년부터 스마트팜 권역별 현장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스마트팜 현장지원센터를 통해 스마트팜 전문기술교육을 24회(421명) 실시했으며, 도 및 시군농업기술센터 컨설턴트에 의한 현장 컨설팅을 41회 실시하고 5시군 13농가에 스마트팜 사후A/S를 추진하는 등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한 교육진행에 어려움 있어 교육용 ‘스마트팜 기본교육서’ 300권을 제작하여 농가에 보급할 예정이다.

최기연 경상북도농업기술원장은 “스마트팜 농가 확산교육을 통해 스마트팜 설치 농가에는 현장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해답을 찾고 희망 농가에는 쉽게 스마트팜을 이해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라며, “아울러 스마트 농업의 첨단기술 보급으로 농가 소득증대에 이바지 하도록 최선을 다할 것” 이라고 밝혔다.

<사진별첨>

 경상북도	보도자료 【20. 7. 7(화)】	담당부서	문화관광체육국 체육진흥과			
		작성 자	과 장	장 철 응		
			사무관	정진욱	담당자	김숙현
		연락처	054-880-3223			

경북도, 철인3종선수 인권침해사건 특별감사 착수

- 민원사항 처리과정의 적정성, 선수 인권보호 체계, 실업팀 운영 실태 조사 -

경상북도는 문화체육관광부의 협조 요청에 의해 경주시청 소속 철인3종선수 인권침해사건의 명백한 진상 규명을 위해 경주시와 경주시체육회를 대상으로 경북도 특별조사·감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감사반은 경상북도 3명, 경상북도체육회 2명 등 총 5명으로 구성하여 7월 8일부터 10일간 실시하고, 필요할 경우 감사기간 연장도 검토하고 있다.

이번 감사는 관련 민원사항 처리과정의 적정성, 선수 인권보호 체계, 실업팀 운영실태 등에 대한 전반을 감사하고, 감사결과에 따라 선수 인권침해 등 비리가 확인될 경우 엄중하게 처리할 방침이다.

이철우 경상북도지사는 “이번 사건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통해 명백히 진상을 규명하고 체육계 내부에 만연해 온 폭행·폭언 등 비정상적인 인권침해의 관행을 하루 빨리 뿌리뽑고 다시는 이러한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고 밝혔다.

<사진없음>

 경상북도	보도자료 【20. 7. 7(화)】	담당부서	과학산업국 4차산업기반과			
		작성 자	과 장	박인환		
			팀 장	홍인기	주무관	오혜림
		연 락 처	054-880-2476	C.F		

헴프산업화 규제자유특구 지정으로 대마산업 역사 새로 쓴다

- 경북 산업용헴프 규제자유특구, 국내 최초 대마산업화의 문 열어 -
- 스마트농업과 첨단바이오산업의 결합으로 지역산업의 새로운 모델 제시 -
- 실무기획력과 정무적역량이 합쳐진 결과물, 신도청시대 발전 촉매 기대 -

경상북도가 ‘산업용 헴프 규제자유특구’에 지정됐다.

이철우 도지사는 7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지난 6일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3차 규제자유특구위원회에서 경상북도가 ‘산업용 헴프 규제자유특구’로 최종 지정을 됐다고 밝혔다.

이번 규제자유특구 지정으로 안동은 대한민국 대마산업의 메카가 될 것이며, 대마산업은 신도청시대 백신클러스터와 함께 북부권 바이오산업의 한축을 담당할 것으로 기대된다.

<참고 : 특구사업 개요설명>

특구 사업 개요

특구 입지와 면적 (340,841㎡)	특구 개요
 스마트팜 Hemp재배 공원 안동시 임하면 일원 7,100㎡	경북 안동시, 경산시 5개 지역 총 340,841㎡ 사업비 : 450억 사업기간 : 2021~2022(2년간)
 CBD 소재추출 기업 및 종합지원센터 안동시 풍산읍 일원(바이오산단) 299,324㎡	
 CBD 소재추출 기업 및 종합지원센터 안동시 바이오산업연구원 일원 15,318.76㎡	
 에탄올 유기용매 추출 시설 보유 기관 (한국한의약진흥원) 경산시 한국한의약진흥원 2,570.19㎡	
 GLP 기구축 장비 보유기관 경북TP 메디컬융합소재실용화센터 16,528.9㎡	
참여기업	▶ 총 4개 컨소시엄으로 구성(22개 사업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헴프 재배 → 상상딴밭 중심 컨소시엄 ■ CBD 제조 → 한국콜마, 유한건강생활 중심 2개 컨소시엄 등 ■ 헴프 관리 → 우경정보 기술 중심 컨소시엄

※ 경산시 2개소는 기구축된 장비를 활용하기 위한 지역지정으로 핵심지역은 안동시 임하

면, 풍산읍 일대 지역임

이번 ‘산업용 헴프 규제자유특구’는 70여년 동안 마약류관리법에서 규제되던 대마를 활용한 바이오산업화의 문을 열었다는 측면에서 큰 의미를 가진다. 기존 대마산업은 섬유용과 종자용 재배만 허용이 되었으나, 이번 특구지정을 기점으로 의료용 대마 산업화를 통한 고부가가치 바이오 소재 시장을 창출해 지역의 산업영역이 한층 넓어지게 됐다.

대마는 기본적으로 마리화나와 헴프(HEMP)로 분류된다. 이 중 헴프는 환각성을 가지는 THC(tetrahydrocannabinol : 테트라히드로칸나비놀)이 0.3%미만인 저마약성 품종군으로, 해외에서는 의료목적 대마제품의 원자재로 널리 쓰이고 있다. 우리나라의 청삼종도 섬유용으로 개발된 저마약성품종으로 헴프로 분류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견해이다.

<참고 : 규제자유특구 실증사업 구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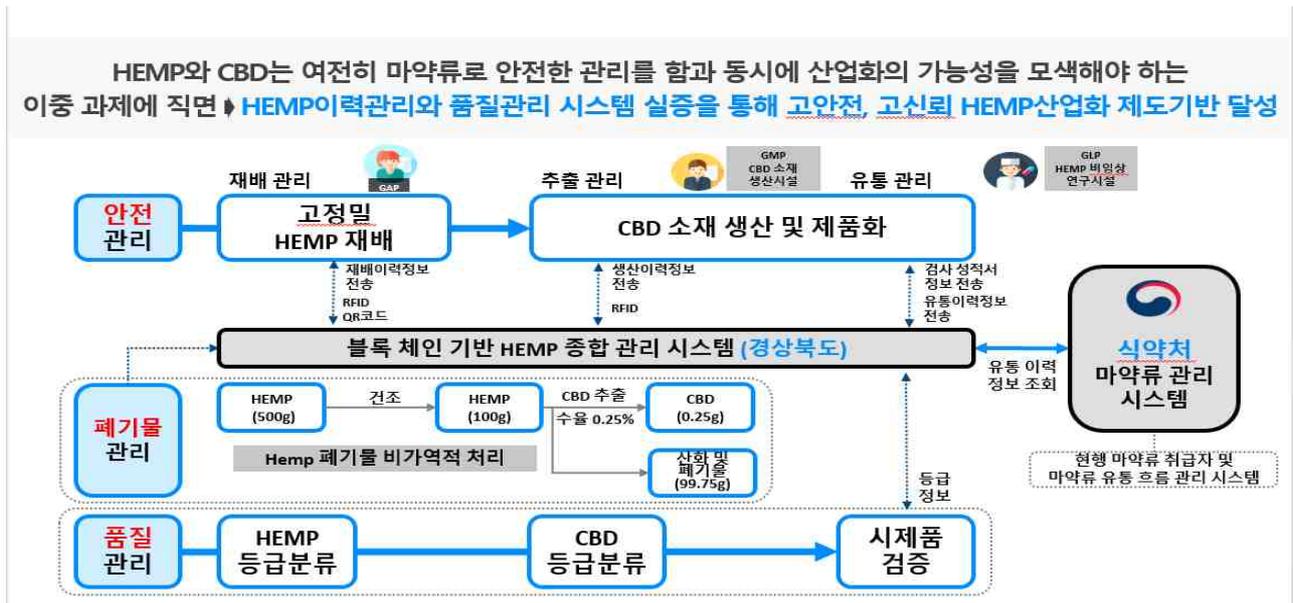
실증사업 구조			
구분	사업	규제 샌드박스	주요 실증 내용
산업 실증	HEMP 재배	재배 특례 실증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고정밀 HEMP재배 실증 고안전 GAP수준 관리체계 실증
	의료제품용 CBD추출 및 제조·수출	제조·수출 특례 실증	<ul style="list-style-type: none"> CBD Isolate 제조·수출 대마성분 의료제품 제조
관리 실증	HEMP 관리	취급금지 특례 실증	<ul style="list-style-type: none"> 품질관리 안전관리

‘산업용 헴프 규제자유특구’는 안동시 임하면, 풍산읍 일대에 스마트팜 기업을 유치해 ICT융합기술을 활용한 산업용 헴프를 안전하게 재배하며, 재배된 헴프에서 의약품 원료로 사용되는 고순도 CBD* Isolate를 추출·정제해 원료의약품으로 제조·수출하고 대마성분 의료목적 제품을 개발·제조하는 사업을 핵심내용으로 한다.

* CBD : 통증과 염증을 줄이고, 간질 발작을 조절하고 정신질환과 중독을 치료하는데 유용한 성분

더불어, 마약성분이 있는 대마의 특수성을 감안해 블록체인 기반 헴프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여 예기치 못한 유출을 사전에 차단하는 안전한 산업화 실증을 추진한다.

<참고 : 블록체인기반 HEMP 종합관리시스템>



이상의 사업들은 2년간(2021.1~2022.12) 재정지원을 받아 안동시 임하면과 풍산면 일대에서 진행을 하게 된다. 경상북도와 안동시는 기반 구축에 소요되는 시간을 감안하여 속도감 있는 사업 수행을 위해 안동시 바이오산업연구원 일대의 인프라와 경산시에 기 구축된 인프라를 최대한 활용해 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기반구축 이후 실질적인 산업화를 위해 경북 바이오산업단지 2단지를 이용해 ‘대마기반 바이오산업 특화산업단지’로 육성하고 바이오기업들의 투자유치에 집중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특구지정과정에는 이전과 다르게 상당한 진통과정을 겪었다. 마약류로 관리되는 대마의 특성상 식약처의 부정적 의견이 상당했기 때문이다.

이러한 난관을 극복하기 위해 도지사와 안동시장이 함께 청와대를 방

문해 햄프의 산업화를 적극 건의했고 실무담당부서는 식약처 및 중기부와 협의를 지속해 나갔다. 그 결과 최종적으로 의료목적에 한정해 특구사업을 시작하는 것으로 협의되어 최종지정에 이르게 되었다. 사실상 경상북도와 안동시의 전방위적인 노력으로 이뤄낸 성과라 할 수 있다.

<참고 : 청와대 방문 규제자유특구 지정 건의>



70여 년간 엄격히 규제되던 대마를 활요한 산업화를 처음 시도하는 지역이 바로 경상북도이며 안동이다. 그간 안동시는 지속적으로 대마 산업화를 위해 노력하였으나 정책사업을 만드는데 어려움을 겪었으나, 경북도와 협력을 통한 충실한 사업기획으로 국가사업화를 실현했다. 특히, 광역과 기초자치단체의 합심으로 국가적 과제를 해결한 성과여서 더욱 남다른 의미를 지닌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이번 특구지정은 대마라는 특수성으로 특구사업을 통해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 하는 무거운 책임이 경상북도와 안동시에게 주어졌다. 그동안 기업들은 매년 20%이상씩 성장하고 있는 대마시장에 도전하기 위해 해외로 나가 사업을 하거나 기초연구 수준에서 머무르는 등 애로 사항이 많았다.

현실적으로 국민보건상 우려도 무시할 수 없는 가치여서 오랫동안 논쟁의 대상이 된 사업이다. 그만큼 사업성도 있지만 위험성도 함께 가지고 있어 도전적인 과제임에는 분명하다. 때문에 성공적인 사업추진을 위해 국내외 모든 대마전문가들의 의견을 모으는 절차가 선행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7월말 경상북도와 안동시는 ‘대마산업 클러스터 종합육성 계획’을 발표하고 앞으로 청사진을 제시하고 내년부터 시작될 규제자유특구 사업을 위한 조직도 정비할 계획이다. 이미 실무기획팀에서는 전략마련을 위한 준비 중에 있으며 국내 전문가의 컨설팅 등을 받아 구체적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 참고 : 규제자유특구 육성전략 중기부 심의위원회 발표내용 발췌 >



이철우 도지사는 “이번 규제자유특구는 마약류인 대마의 합리적 산업화 방안을 모색한다는 측면에서 기존 특구와는 다른 특별한 의미를 지닌다” 면서, “민선7기 신도청시대를 열어가는 산업정책으로 경북 바이오산업단지에 기업이 넘쳐나는 새 역사를 쓸 수 있도록 더욱 키워 나가겠다” 라고 강조했다.

<사진별첨>

□ 사업개요

- (개요) 의료용 헴프*추출 소재·제품의 산업화를 통한 고부가가치 바이오 산업 육성 및 의료용 대마 산업의 제도적 기반 마련
 - * 헴프(HEMP): 환각성분(THC) 0.3%미만 대마식물 및 그 추출물을 의미, 환각성이 높은 마리화나와 구별되어 비환각성 산업용 소재로 이용
- (사업내용) ①스마트팜 활용 **헴프 재배** ②원료의약품 **제조·수출 실증** ③재배부터 제품생산 등 전과정에서 **품질 및 안전관리**
- (사업위치) 안동 임하면 및 풍산면 일원 등 340,841㎡
- (사업자) 유한건강생활 등 22개 특구 사업자

□ 세부 사업내용

- ① **산업용 헴프 재배 실증 : 상상텃밭 등 8개 사업자**
 - (사업내용) 기존 안동시 재배 기반을 바탕으로 스마트팜 기업을 유치하여 ICT기술융합을 통해 헴프 생산 시 안전성·안정성 확보
- ② **원료의약품 제조·수출 실증 : 유한건강생활, 한국콜마 등 12개 사업자**
 - (CBD*소재) 헴프에서 고순도 CBD를 추출·정제하여 대마성분 의료제품에 사용되는 원료의약품으로 제조 및 수출
 - * CBD : 통증과 염증을 줄이고, 간질 발작을 조절하고 정신질환과 중독을 치료하는데 유용한 성분
 - (의료목적 제품) 대마성분 의료목적 제품(일반의약품, 전문의약품 등) 개발을 위한 제품의 안전성·유효성 실증
- ③ **산업용 헴프 관리 실증 : 경북바이오산업연구원 등 3개 사업자**
 - (사업내용) 안전성·안정성 확보를 위해 전주기적 품질관리 및 이력관리

참고2

「경북 산업용 헴프 규제자유특구」 특구사업자

□ 총 22개 특구사업자(기업 17, 비영리기관 5)

특구사업	사업자명	실증내용	비고
산업용 헴프 재배 사업 (8)	농부심보	① HEMP 재배방법 표준 실 증 ② 고안전 GAP수준 관리체계 실증	비영리기관 (안동대학교, 경북바이오산 업연구원)
	에이팩		
	(주) 팜에이트		
	상상틔밭		
	(주)엔싱		
	넥스트온		
	경북바이오산업 연구원		
	안동대학교		
원료의약품 제조·수출 사업 (12)	유한건강생활	초임계유체 추출(SFE)과 초임계 유체 크로마토그래피(SFC) 추출	비영리기관 (KIST, 한국한의학 진흥원, 경북테크노 파크)
	버던트테크놀로지		
	한국콜마	마이크로웨이브 및 초음파 추출법 등 고순도 CBD추출기술 검증	
	엔에프씨		
	한국씨엔비바이오		
	교촌에프앤비	대마성분 의료목적 제품개발을 위한 CBD의 안전성·유효성 검증	
	한국유니온제약		
	씨티씨사이언스		
	유셀파마		
	KIST	마이크로웨이브 기술지원	
	한국한의학진흥원	에탄올 유기용매 추출지원	
	경북TP 메디컬융합소재 실용화센터	안전성 검사지원(GLP)	
산업화 헴프 관리 사업 (3)	경북바이오 산업연구원	블록체인 기반 안전 및 품질 관리	비영리기관 (경북바이오산 업연구원)
	우경정보기술		
	블록체인 렉스		

* 경북바이오산업연구원은 2개 사업에 참여

참고3**제3차 특구 지정현황**

구분	지역	특구명
1	부산	부산 해양모빌리티 특구
2	대구	대구 이동식협동로봇 특구
3	울산	울산 계농서비스산업 특구
4	강원	강원 액화수소산업 특구
5	충남	충남 수소에너지전환 특구
6	전북	전북 탄소융복합 특구
7	경북	경북 산업용 헴프 특구

 경상북도	보도자료 【20. 7. 7(화)】	담당부서	건설도시국 도시계획과			
		작성자	과장	김규율		
			팀장	차광인	주무관	오철희
		연락처	054-880-3913			

道 건설도시국, 변화와 새바람의 민선7기 2년 동안 SOC 확충 등 총력 다해.. 경북발전의 성장발판 다져

▶ SOC 국비 대폭 확보, 사통팔달 교통망 구축 등 괄목할 성과 거양

- ① SOC 국비 대폭 확보 ② 사통팔달 교통망 구축 ③ 도시재생 뉴딜사업 추진
 ④ 안전하고 쾌적한 하천정비 ⑤ 명품행정문화도시 도청신도시 활성화

< 주요 성과 ('18.7.1 ~ '20.6.30) >

① SOC 국비 대폭 확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9년 2조 610억원 확보(道 3조 6,887억원 55.9%) · '20년 2조 5,313억원 확보(道 4조 4,664억원 56.7%) ·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 예타면제사업 3곳 선정
② 사통팔달 교통망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속도로 4, 국도 33, 국지도 14, 지방도 71, 철도망 14지구 등 총 136지구 건설추진 - 이중 고속도로 1, 국도 10, 국지도 4, 지방도 13, 철도망 1지구 등 총 29개 지구 준공 · 특히 울릉 일주도로를 55년만에 개통
③ 도시재생 뉴딜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4년부터 지금까지 17개 시·군, 20곳 6,156억원 · 새뜰마을 및 지역수요 맞춤형지원사업 총 46개, 1,112억원
④ 안전하고 쾌적한 하천정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방하천 조성관리 72개 지구 112.5km, 3,413억원 · 지방하천 유지관리 23개 시군 359개소 4,179km구간 · 콩레이(2018년), 미탁(2019년) 태풍 수해복구
⑤ 명품행정문화도시 도청신도시 활성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청신도시 건설사업(2단계) 추진 순행 - 도서관 개관(2019년) 호민지 수변생태공원 조성사업 착공 · 도청신도시 진입 연계교통망 3개노선 사업완료

경상북도(건설도시국)은 민선7기 출범 이래,

‘새바람 행복경북, 변해야 산다’는 도정 슬로건에 발맞춰, 사통팔달 교통망 구축 등 도민의 생활편의와 복리증진을 위해 지난 2년간 땀과 열정을 쏟은 결과 다방면에서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두었다.

먼저, 어려운 여건 속에서 도지사를 필두로 중앙부처를 뛰어 다니며 맨투맨식 소통을 강화하고, 지역 국회의원과 긴밀한 공조체계를 구축하여 SOC 국비 예산을 대폭 확보했으며, 사통팔달 교통망 구축 등 SOC 확충을 통해 경북이 한 단계 성장해 나갈 수 있는 발판을 다져왔다.

쇠퇴하는 원도심의 기능회복으로 도시경쟁력을 강화시키고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도시재생뉴딜사업, 취약지역의 생활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새뜰마을 사업, 지역수요 맞춤형 지원 사업이 중앙부처 공모사업으로 선정되는 쾌거를 이루었다.

지방하천의 조성관리는 물론 국가 및 지방하천 제방, 시설물에 대한 철저한 점검·정비와 하천구역 내 유수소통에 방해가 되는 지장물을 제거하여 하천 흐름을 원활하게 하는 등 하천 주변의 환경을 개선해 도민의 삶의 질을 한층 더 향상 시켰다.

아울러, 경상북도 도서관 개관, 호민지 수변 생태공원 조성사업 착공 등 도청신도시 2단계 사업이 계획대로 순행하고 있으며, 도청신도시 진입 연계교통망 3개 노선사업을 완료하는 등 도청신도시 활성화를 위해서 박차를 가하고 있다.

그 외에도 지역여건을 반영한 도시계획 및 도시개발사업,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차지원사업, 디지털 지적데이터 관리를 위한 지적재조사사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많은 성과를 거두었다.

건설도시분야의 주요 성과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① SOC 국비 대폭

확보, ② 사통팔달 교통망 구축, ③ 도시재생 뉴딜사업, ④ 안전하고 쾌적한 하천정비, ⑤ 명품행정문화도시 도청신도시 활성화 등을 들 수 있다.

■ SOC 국비 대폭 확보

2019년도(당초예산 기준), 경북도는 국비 3조6천887억 원을 확보했다. 이 중 SOC 등 건설도시 분야 국비는 2조610억 원으로 전체예산의 55.9%에 달 할 정도로 확보해 지역 발전의 견인차가 되어 왔다

2019년도 정부예산에 반영된 주요사업을 보면,
△중앙선 복선전철화(도담~영천) 4천391억원 △중부내륙 단선전철(이천~문경) 3천403억원 △동해중부선 철도부설(포항~삼척) 3천177억원 △포항~영덕간 고속도로 건설(남북7축) 603억원 △영천~신경주 복선전철화 620억원 △대구외곽 순환(성서 지천, 안심 지천) 592억원 △구포~생곡 국도대체우회도로 464억원 △서면~근남1 국도확장(동서5축) 227억원 △용상~교리 국도대체우회도로 220억원 △주상~한거리2 국도확장 215억원 △울릉일주도로2 건설 190억원 등이 있다.

또한, △죽장~달산간 국지도 건설 5억원 △온정~원남간 국지도 건설 5억원 △구미산단철도(사곡~구미산단) 2억원의 신규사업 예산도 확보하여 지속적인 지역 균형발전의 발판을 마련했다.

그리고, 2020년도(당초예산 기준) 경상북도가 확보한 전체 국비 4조4천664억원 중에서 SOC 등 건설도시 분야에 확보한 2조5천313억원(전체 56.7%)을 투입하여 사상 초유의 코로나19로 어려워진 지역경기 활성화와 서민경제 활력회복에 선봉을 서고 있다.

2020년도 정부예산에 반영된 주요사업을 보면

△중앙선 복선전철화(도담~영천) 5천460억원 △중부내륙 단선전철(이천~문경) 3천8백억원 △동해중부선 철도부설(포항~삼척) 1천985억원 △포항~영덕간 고속도로 건설(남북7축) 1천72억원 △동해남부선 복선

전철화(포항~울산) 719억원 △구포~생곡 국도대체우회도로 560억원
△용상~교리 국도대체우회도로 341억원 △주상~한기리2 국도개량 158
억원 △옥률~대룡 국도대체우회도로 233억원 △울릉일주도로2 건설
253억원 △영일만횡단구간 고속도로(포항~영덕) 10억원 등이다.

신규사업으로는 △동해선 전철화(포항~동해) 225억원 △남부내륙철도
(김천~거제) 150억원 △농소~외동간 국도4차로 건설 25억원 △국도59
호선(상주 낙동~의성 다인) 위험도로 개량사업 4억원 △칠곡 국도4호
선 대동다숲~등기소간 부채도로 개선사업비 1억원을 확보했다.

특히, 지난해 1월 동해선 전철화 4천875억원, 남부내륙철도 4조7천억원,
농소~외동간 국도 4차로 1천896억원 사업이 예비타당성 면제사업으로
선정되었고, 문경~김천간 전철화 1조3천714억원 사업은 예비타당성
대상사업으로 선정되어 대형국책사업 추진의 기틀을 마련했다.

■ 사통팔달 교통망 구축

사통팔달 교통망 구축을 위한 그림도 하나 둘 그려나간 민선7기 2년
이였다.

경상북도는 사통팔달 교통망 구축을 위해 민선7기 시작부터 국회, 관련
부처 등에 사업의 시급성을 설명하여 신규사업을 조기 착공할 수 있
도록 하고,

추진 중인 사업은 조속히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애쓴 결과, 고속도로
4지구 8천48억원, 국도 33지구 1조1천480억원, 국지도 14지구 2천980
억원, 지방도 71지구 1천797억원, 철도망 건설 14지구 3조4천649억원
등 총 136지구 5조8천954억원 건설을 추진하여,

이중 고속도로 1지구, 국도 10지구, 국지도 4지구, 지방도 13지구, 철
도망 1지구 등 총 29지구가 준공되어 도내 교통망을 더욱 촘촘히 하여
도민의 생활권을 넓혔다.

특히, 울릉 일주도로 개통으로 울릉군 주민의 편의를 제고함과 동시에 울릉도를 관광 도시로 재도약 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

아울러, 향후에 통합신공항 건설계획을 고려하고 대도시와 산업단지의 접근성 향상으로 기업하기 좋은 교통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구미~군위 IC간 국도확장, 군위~의성, 고로~우보, 예천~지보, 김천~구미, 구포~생곡 국도대체우회도로 등 도로망을 구축하여 물류와 사람이 빠르고 쉽게 이동할 수 있는 기업하기 좋은 환경조성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 도시재생 뉴딜사업

경상북도가 인구·산업 등의 심각한 감소에 대응하기 위해 역점적으로 추진한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2014년 영주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2017년까지 9곳 1천686억원에 머물던 것이

민선7기 첫해인 2018년에는 포항 흥해 지진극복을 도시재생과 접목시키는 등 9곳에 2천149억, 2019년에는 구미 혁신지구 영천언하 공업지역을 포함해 11곳 2천321억을 확보하여 현재 6천156억원으로 성장시켰으며, 참여 시군도 꾸준히 확장되어 17개 시군에서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착수시켰다.

이를 기반으로 2021년까지 전 시군마다 1곳 이상 도시재생 사업이 추진되도록 하고 도시재생 사업을 1조원 이상의 규모로 성장시켜 지역 뉴딜사업으로 만들어 나갈 계획이다.

그 외에도 취약지역 생활개조사업인 새뜰마을 사업이 2019년 16개 사업 336억원, 2020년 19개 사업 446억원 등 총 35개 사업이 선정되어 국비 573억원을 확보했다.

또한, 지역수요 맞춤형 지원사업으로 2018년 4개 사업 126억원, 2019년 7개 사업 204억원 등 총 11개 사업이 선정되어 국비 173억원을 확보

하는 성과도 거두었다.

경상북도는 지속적으로 주민역량을 키우고 지역거버넌스 구축과 전문가 양성을 위한 거점대학 육성, 주민참여를 유도하는 소규모 재생, 코로나 19 이후 환경변화에 대응하는 스마트시티 도입으로 도시의 경쟁력을 회복시켜 나갈 계획이다.

안전하고 쾌적한 하천정비

경상북도는 도내 지방하천을 안전하고 쾌적하게 정비하여 수해 예방 등 예기치 못한 사고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먼저 정비사업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국회 및 중앙부처를 방문하여 열악한 지방재정의 현실을 설명하고 설득하여 2년여 간 1천 890억원의 국비를 확보했으며,

72개 하천 112km구간에 3천413억원을 투입하여 상습적으로 수해피해가 발생하는 하천 미개수 지역 정비사업을 추진했다.

특히, 2018년 마무리사업으로 예천 송평천·구미 금오천 물순환형 수변도시사업에 140억을 들여 건천화된 하천 유지용수를 공급하여 생태를 복원하고 항상 맑고 깨끗한 물이 흐르는, 살아 숨쉬는 친수공간을 조성했다.

또한, 2019년 마무리사업으로 의성 남대천 외 4개 하천의 고향의 강 정비사업에 313억원을 투입하여 하천수해 예방과 수질개선으로 자연친화적이고 지역의 특색 있는 명품하천으로 조성했다.

아울러, 매년 발생하는 태풍 및 집중호우 피해에 적극 대비하기 위해 지방하천 개보수 및 유지·관리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다.

23개 시군 지방하천 359개소 4천179km구간 중 재해에 취약한 노후 하천시설의 개보수를 위해 120억원, 노후 수문정비에 28억원, 여름철 호우피해시설 및 하상 퇴적토 준설을 위해 30억원, 하상 우수지장목 제거에 24억원을 투입하는 등 총 202억원을 들여 지방하천 유지관리에 힘썼다.

최근 2년동안 태풍 내습으로 많은 피해가 속출하였으나 신속한 피해 조사 및 하천개선복구를 위한 예산확보 노력으로 2018년 10월 태풍 ‘콩레이’ 복구사업비 243억원, 2019년 10월 태풍 ‘미탁’ 복구사업비 1천945억을 확보하여 수해로 실의에 빠진 도민들이 일상생활에 빠르게 복귀할 수 있도록 피해복구에 최선을 다 해 오고 있다.

■ 명품행정문화도시 도청신도시 활성화

2010년 5월 도청신도시 개발예정지구 지정·고시와 함께 본격적으로 시작된 도청신도시 건설사업은 2018년 민선7기 이후 눈에 띄는 변화가 시작되었다.

특히, 2019년 5월 도청신도시 건설 1단계 사업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신도시 내 공동의 관심사에 대한 관계기관간의 원만한 협의·조정을 위해 ‘도청신도시발전협의체’를 구성해 도민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했다.

2015년부터 2022년까지 8년간의 공정으로 진행되고 있는 도청신도시 건설 2단계 사업은 순조롭게 추진되고 있으며 정주환경 개선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사업들은 속속 진행되고 있다.

첫째, 일반자료, 행정자료, 어린이 자료 등을 포함하여 6만종 이상을 보관하고, 문화교실, 강당, 회의실 등을 갖춘 경북도서관이 2019년 11월에 개관되어 도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받고 있다.

둘째, 시민의 휴식공간으로 자연과 함께하는 힐링공간으로 활용될 산

책로, 전망대, 보행교 등이 설치되는 호민지 수변생태공원 조성사업이 착공되어 2021년 7월에 완료될 예정이다.

셋째, 신도시 연결도로는 8개 중 장기과제 2건을 제외하고 3건은 설계 및 공사 중이고 3건은 준공되어 신도시의 접근성을 크게 개선했다.

넷째, 대중교통정보, 실시간 교통제어, 생태환경 모니터링, 스쿨존 안전운전 유도, 불법주정차 감시 등을 자동으로 제어하는 스마트도시 건설사업이 한창 진행 중이다.

도청신도시 건설사업이 완료되면 모든 서비스는 도시통합센터에서 관리되고, 시민들은 호민지에서 여가를 즐기면서 송평천을 따라 조깅을 즐기는 등 최신 IT기술을 접목한 최첨단 도시생활을 영위하게 될 것이다.

지난 민선7기 2년 동안 경상북도(건설도시국)는 변화와 혁신의 새바람 속에서 ‘대한민국의 중심 경상북도’를 구현해 나가고자 SOC 확충 등으로 전국적인 접근성 향상과 더불어 도민의 교통편리 등 생활편의 제고에 총력을 다 해왔다.

후반기 2년에도 SOC 국비 예산의 대폭 확보와 핵심 SOC시책들의 성과 창출에 주력하여 도민이 행복한 경북을 구현하는데 모든 역량을 집중해 나갈 계획이다.

<사진별첨>